

KB 쫘쫘끼 - 방직일관으로 직물 사업 늘어 흑자로 바뀔 듯

일본의 10대방 중 하나이던 가네보(鐘紡)가 무너지면서 ‘KB(KANEBO) 스피닝’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몇 달 못가서 쫘쫘끼방(都築紡)에 흡수되면서 쫘쫘끼방의 자(子)회사인 ‘KB 쫘쫘끼’로 전환되었다. KB 쫘쫘끼의 2006년 12월기(期) 업적은, 판매고가 2005년과 비교하여 10~15% 증가한 100억엔을 초과하여, 영업 이익, 경영 이익, 세공제전(稅控除前) 이익이 모두 흑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KB 스피닝의 실적은 제외). 방직에서 제직까지 일관(一貫)된 직물 사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합리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 도움을 주었다.

경영을 전략적으로 확대한 것이 이즈모(出雲) 공장에서 생산된 면사를 오이타(大分) 공장에서 직물로 짜는 방직일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제까지 많지 않던 방직일관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경쟁력이 올라갔다. 직물 사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20% 증가하였다.

방직일관의 직물 사업 추진을 늘림으로써 면사 생산도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여기서는 그 동안 수입사를 사용하던 것을 자사(自社) 면사로 바꾼 사례가 많았다. 2006년 가을부터는 이마바리(今治) 산지 등으로 30수 쌍사의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이것도 이제까지 파키스탄 면사들이 사용되고 있던 영역을 겨냥한 개선이다.

또한 면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재고(在庫)를 2005년부터 반으로 줄여 약 0.5개월분으로 하는 등과 같이 영업을 합리화하였다. 10~12월은 면사, 직물 모두 순조롭게 돌아가 면사 생산은 풀(full) 조업으로 월 1만곤(梱)을 넘

을 것으로 짐작된다.♣